

삶 터 바다 지키기 점점 힘들워

[제주 잠녀]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용수리

등록 : 2006년 11월 05일 (일) 14:56:23
최종수정 : 2006년 11월 05일 (일) 14:56:23

고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사진은 용수리에서 바라본 차귀섬 전경으로 용수리 잠녀들은 차귀섬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물질을 해 오고 있다. 왼쪽은 눈섬이다.

끈끈한 가족애가 원동력

제주 '잠녀'는 제주 여성을 대표한다. 추운 겨울 삭풍 속에서도 서슴없이 바다로 뛰어들던 억척스럽고 강인한 모습 뿐만은 아니다. 용수리 잠녀들 속으로 들어가면서 무엇보다도 끈끈한 가족애가 가슴을 흔든 것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니다.

용수리는 매년 음력 3월 보름 절부암제를 지낸다. 이전에는 금능 포제와 비슷한 형태의 화상수제를 지냈지만 지금은 절부암제만 지낸다고 했다. 전설에 의존한 것은 아닌가 했지만 절부암에 대한 용수리 주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유래를 묻는 질문에 기록 하나를 내놓는다.

'조선계록' 속 용수리 절부암은 '무반(武班)인 강사철의 처(妻) 고씨의 정절을 기리는 비'라는 기록이 있다.

1853년 군역(軍役)으로 차귀도로 대나무를 베러갔던 남편이 탄 배가 침몰하자 고씨는 남편의 시신을 찾아 3일간 인근 해안을 뒤지다 끝내 목을 매 죽음을 선택한다. 당시 고씨의 나이는 19살로 결혼한지 채 일년이 되지 않은 때로 전해진다. 그 뒤 3일만에 고씨 부인이 목을 맨 언덕 아래 남편의 시신이 떠 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이들 부부를 당오름 동쪽 자락에 합장했으며, 고씨 부인의 정절이 알려지며 절 부암을 세우게 됐다.

실제 고산리와 용수리 경계 일주도로변에는 이들 부부의 합장묘가 있다. 또 제주도에서는 유일하게 박달나무 군락지가 형성된 가운데 고씨 부인의 절부암이 모셔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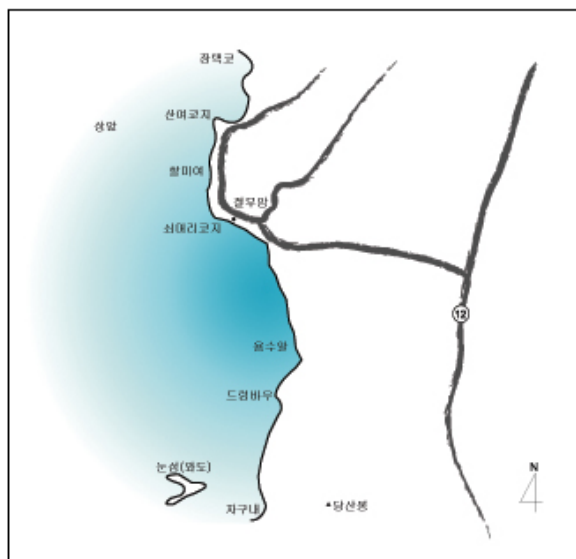
지독히도 가난했던 탓에 고씨 부인은 고기 낚기와 해조류·패류 캐기 등으로 생계를 연명, ‘잠녀’로 추정되고 있다.

용수리 잠녀들 사이에 내려오는 노래 속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있다.

“...우리 아기 젖 맥여줍서/젖 맥여주른 우리집의 불오그라진 검은 암소를 주쿠다...”

물질 도중 차귀도를 통과하는 좁고 물살 센 수로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불렀다는 이 노래는 당장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어린 자녀를 먼저 걱정하는 애절한 심정이 녹록히 담겨있다.

용수리에서 바라본 차귀섬과 눈섬은 오백장군 중 막내 아들이 어머니 설문대할망의 상여를 따라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 용수리어촌계 수역

물질을 위해서라면 먼 바다까지

마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용수리는 물이 좋다. 예전 제를 지냈다는 ‘화상수’역시 화를 면하는 물이라 하여 마을 회의에서 정해진 제관이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일주일간 불을 꺼뜨리지 않으며 정월 보름날 밤 12시 제를 지냈다.

마을 어촌계장과 이장 등을 두루 거치며 마을 역사와 함께 해왔다는 이우규 할아버지(77)는 직접 화상수와 절부암을 안내해줬다.

용수리 해안가 중간 즈음에 위치한 소머리코지는 5월 장마때 바다가 뒤집히며 청룡이 승천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에 마을 곳곳의 지명 유래, 호종단의 전설이 남아있는 ‘매부

리 형상’을 한 방사탑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이 할아버지는 “예전에 직접 화상수체에 제관으로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아쉬워했다.

물이 좋다고는 해도 이곳 잠녀들의 작업장은 ‘먼 바다’다.

고산리와 마찬가지로 용수리 역시 차귀섬을 빼놓고 잠녀 작업을 얘기하기 힘들다.

차귀섬 앞 누룩빌레에서 대부분의 물질이 이뤄지고 선여·동여·선어리 등에서도 잠녀 작업을 한다. 하지만 해안선에서 20~30분 물을 헤치고 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작업이 이뤄지고 작업을 끝낸 후에는 배를 타고 돌아온다.

용수리 잠녀는 모두 109명. 이중 36명은 고령 등의 이유로 물질 작업을 하지 않고 있고 19명은 가까운 바다에서 해조류 등을 채취하는 일을 한다. 직접 물질하는 잠녀는 54명이지만 이중 21명은 70세 이상이다.

김선녀 용수리 잠녀회장은 “가까운 바다에서는 거의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먼 바다까지 헤엄을 쳐 나가야 겨우 작업을 할 수 있다”며 “지난해까지 4000원이던 배삯이 올해는 얼마나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해가는 어장 환경

용수리 어촌계는 한림수협 관내 18개 어촌계 중 중상 수준의 규모를 갖고 있다. 따로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지만 18개 어촌계가 소라 입찰을 위해 선발하는 5명의 구성위원 중에 용수리의 몫도 있다고 했다.

올해 용수리 어촌계는 오분작 종패 3만미와 전복 종패 5만미를 인근 바다밭에 뿌렸다. 올 연말에는 오분작 종패를 추가로 뿌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

김순철 어촌계장(58)은 “지선 가까운 곳에 종패를 뿌리고 있지만 걱정이 많다”며 “어린 전복 등을 캐가버리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다 바다 사정도 예년만 못하다”고 털어놨다.

용수리 어촌계에서는 3·4월에는 툇을, 5·6월에는 천초를 채취한다. 올해 채취한 툇 수확량은 3500~4000kg, 천초는 2264kg(어촌계 판매량 기준) 수준이다. 재작년까지 제법 수확됐던 몸은 올해 자취를 감췄다.

한해 4000~5000kg 수확되면서 호텔 납품용이나 수출용으로 소득원 노릇을 했던 갈래곰보나 몇 만kg이나 채취됐던 고장초는 3년전부터 사라지고 없다.

어장이 많이 황폐해진 다른 지역들과 달리 용수에는 육상양식장도 바다밭을 망가뜨릴 별다른 요인도 없어보였다. 하지만 유통적인 바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용수리 어장의 변화는 제주 바다 자원 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다 작업이라는게 뭐니뭐니해도 ‘관리’가 중요한데 요즘은 사람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초가 잘 자라야 전복 등의 종패도 잘 자라기 마련인데 해초가 사라지면 다음은 전복 등이, 그 다음은 해녀가 사라지겠지요”

그림엽서 속 풍경처럼 고즈넉한 분위기를 담아 민박 등 어촌계 사업도 진행했었다.

하지만 우후죽순 민박들이 늘어나면서 문을 닫은 지 오래다. 유어선도 운영하고 있지만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생명’과 같은 바다를 의지하고 지켜가기가 힘겹다는 얘기가 우리 잠녀의 밝지만은 않은 내일을 투영하는 것 같아 돌아오는 발이 무거웠다.

‘발로 밟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한경면 용당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